

祝 辭

2016. 8. 30(화) 15:00~15:5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2층 대회의실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중 룡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중룡입니다.

오늘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세계 최초로 개통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 동안 오픈플랫폼 개소를 위해 애써주신
이홍모 금융결제원장님, 정연대 코스콤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님,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님과
여러 귀빈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핀테크 기업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II. 핀테크 육성 추진 노력과 그간의 성과

여러분,

정부가 작년 초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핀테크 육성을 선정할 당시만 해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핀테크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설새 없이 달려온 결과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금융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규제개선**과 함께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 결과 **계좌이동 서비스**와 **비대면 실명 확인** 등
불가능했던 금융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이
쉽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방안에 따라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가
국민 자산 증식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얼마 후 **인터넷 전문은행**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명실상부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작년 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핀테크를 알고 있으며
이용자의 74%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유수의 언론***들도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쥐드 도이체 자이퉁 “속도가 빠른 나라-한국의 핀테크 산업”(15.9.14)

지난달 열린 「**핀테크 데모데이 in 런던**」 행사에서는
200여명의 현지 관계자가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25만불**의 투자 유치,
향후 3년간 약 **3,000만불**의 수출 계약,
국내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의 현지 서비스 런칭 등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영국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양국간 **핀테크 협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모두가 빠르게 성장 중인
우리 **핀테크 산업의 밝은 미래**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III.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의 의의와 기대효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우리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개통되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바로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A은행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도
B은행과는 호환이 되지 않아
협약에서부터 개발까지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16개 은행과 25개 증권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이 중심이 되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드디어 오늘 세계 최초로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오픈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 소스를 내려받는 것으로

전 은행 **계좌조회** 기능이 있는 **가계부 앱**,
회비 자동이체 기능이 있는 **동창회비 관리 앱**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이 기술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서비스 출시 전에는 금융보안원이 보안성 테스트를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이라면
오픈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금융개혁을 더욱 가깝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IV. 마무리 말씀

여러분,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 산업의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입니다.

이제 핀테크 산업의 핵심인프라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개통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지속 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경쟁과 혁신은 핀테크 산업 뿐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듯이

오늘 개통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핀테크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루고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만드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금융개혁과 핀테크 혁신을 위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